



16면

민선8기 무주군정의 힘찬 출발

전주매일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음 6월 13일) 제30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김관영 도지사,尹 대통령에 전북 현안 전폭 지원 요청

지역대학 학과 탄력 조정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건의

尹 “좋은 제안... 관계부처에 긍정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첫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지난 8일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간담회는 기념촬영, 개회 및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발씀, 홍준표 대구시장(시도지사協 임시회장) 인사발씀, 각 부처 장관 등의 안건 발표, 건배제의, 민찬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각부처 장관의 발표 순서에서 경제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

책 방향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지방시대 추진전략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찬장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건배사를 했다. 그는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공약인 국제학교, 테마파크 유치 등 새만금 사업과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지원을 통해 전북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발급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내 발급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고,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자리는 중앙정부와 새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여야와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부터 어려움에 놓인 민생과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이 솟아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15일 부안 격포항서 개최

14~17일 4일동안 열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14~17일 4일간 부안군 격포항~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 미국, 러시아, 터키 등 13개국, 요트 35여 척,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하고 CRC(전문선수), OPEN(동호인선수), SPORT(소형요트) 등 3개 부문의 규모로 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소규모로 축소해 진행하던 대회를 이번에는 성악가 비라톤 김동규의 초청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14일에는 대회 설명회, 각종 이벤트행사 등이 열린다. 개회식은 부안 격포항 특설무대에서 15일 오후 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각 코스별 경기는 프로암 경기 15일, 인쇼어(Inshore, 격포항에서 위도를 오가는 코스) 1·2·3차 경기는 16일, 오프쇼어(Offshore) 4·5·6차 경기는 17일에 각각 진행된다.

모든 일정은 17일 시상식 및 폐막식을 갖고 마무리된다. /김경수 기자

사회적기업 경쟁력 ‘UP’

사회적경제 박람회 도내 기업 10곳 참가

유공자 포상서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쾌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가 참가해 전라북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힘썼다. 10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17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광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16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전시·판매·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또 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및 소셜벤처 임팩트 기업설명회(IR) 등도 진행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학술·정책 행사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킹 판로지원 및 문화·관광 시민참여 행사 등도 열렸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 소공물인 e-store 36.5에서는 22일까지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된다.

특히, 전북도는 이날 사회적경제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 표창(2명), 협동조합 어워드 우수상(1개소)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통령 표창에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이효진), 국무총리 표창에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최인남)과 세미푸드 협동조합(이재배)이 수상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시상하는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우수상은 사회적협동조합 익산청소년자립학교가 수상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에서도 원숭이두창 대비 가능

도 보건환경연구원, 오늘부터 의심 환자 대상 진단검사

질병청으로부터 기술 이전... 의심 증상 있을 시 신고를

전북도에서도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11일부터 도내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 확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달 22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민적 관심이 높을 상태다.

주요 증상은 1~2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피로감 이후 피부병변

(발진 등) 및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난다. 주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감염자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잠복기가 길어 감시가 어려운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청(1339)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